

나주시, 혁신도시 중심 공공기관 2차 이전 '주도'

혁신도시 간 정주여건 개선 공동 대응 방안 등 제안 희망 도시 출마 의지...“지역 성장거점 조성정책 마련”

나주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 간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충북 음성군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와 향후 협의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혁신도시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시는 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으로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혁신도시 발전지원청 설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세종시 행복청과 같은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혁신도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각 혁신도시의 발전 사례와 공공기관 협력 우수사례가 공유된 가운데 나주시는 에너지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특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립에너지전문화과학관 유치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어 차기 임원 도시 선출 방식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나주시는 오는 8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례회에서 회차 도시 출마 의지를 밝히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혁신도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향후 공동 대응과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협의의와 긴밀히 협력해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나주시는 최근 충북 음성군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와 향후 협의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여한 지자체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나주시청

영광, 생활환경 개선...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눈에 띄네'

1분기 반입량 4.8t 감소...재활용품 수거량 2배 증가

영광군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생활폐기물 감소와 재활용품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하루 평균 4.8t 감소했다.

반면 재활용품 수거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의 분리배출 참여가 확대되면서 재활용 가능 자원이 효과적으로 분리·수거된 결과로 분석된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우리 동네 새단장' 운동 등 교육·캠페인 추진으로 자원순환 체계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지난 3월 26일 군청 광장에서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 개선을 위한 결의대

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이장단 교육과 마을별 좌담회 등에 나섰다.

특히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투기 단속도 강화했다. 실제로 3월 한 달 동안 4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총 4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섰다.

군은 앞으로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확대, 불법투기 신고 포상제 도입,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자원순환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폐기물 관리 정책을 통해 환경 개선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중량제 봉투 사용과 분리배출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함평, 농업 현장 중심 밀착 컨설팅 강화

맞춤형 안전관리...사고 예방·안전의식 높여

함평군은 농촌진흥청, 전남도농업기술원과 함께 농작업 안전 재해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13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지원책이다.

군은 지난 9일 대동면 딸기 체험 농가를 방문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날 농작업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 사다리와 출입구 구조물, 별동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사다리 미끄럼 방지 장치 부착 △구조물 시인성 개선 △별동 위치 조정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체험농장의 특성을 고려해 △방문객 안전 수칙 안내 △종사자 안전 교육 △보험 가입 등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대응책도 함께 안내했다.

오는 15일 군 농업기술센터 다목적홀에서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체계 구축 컨



함평군이 농작업 안전 재해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컨설팅에 나선 모습. 사진제공=함평군청

설팅 농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정호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 컨설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3@gwangnam.co.kr

바이오화학시험인증센터

KATRI시험연구원 | 최근 주상동 미래혁신지구에 바이오화학시험인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KATRI시험연구원, 친환경 소재 산업 본격화

여수 미래혁신지구에 바이오화학시험인증센터 개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생분해 플라스틱의 분해도와 바이오매스 합량 분석,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험·평가 기능을 통해 여수산단의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생분해 소재 및 자원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탄소중립과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하이브리드 전문 거점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것은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이번 개소를 계기로 바이오화학 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ATRI시험연구원은 섬유, 소재·부품, 화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검사·인증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바이오·환경 분야까지 기능을 확대해 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영암, 군민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확대

17일까지 이용권 추가 접수

영암군은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수혜 확대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경제적 여건으로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태권도, 승마 등 다양한 종목의 민간·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13개소 장애인 8개소의 가맹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등 5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매월 최대 10만5000원을 지원하며, 장애인 이용권은 5세부터 69세까지 매월 최대 11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최복용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추가 신청을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이 건강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복지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최복용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추가 신청을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이 건강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복지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걷고 끄고 뽑고’ 해남, 에너지 절약 캠페인

내달까지 ‘나부터 해봄!’...SNS 인증 해남사랑상품권 지급

일상 속 작은 행동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해남군이 군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문화 확산에 나선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실천 운동인 ‘지속가능해남, 함께 해~봄’ 캠페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추진해 온 ‘해남형 ESG’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군민 일상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캠페인의 첫 단계인 ‘나부터 해봄!’은 오는 5월까지 진행된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효율 개선을 핵심 주제로, 출

근길 걷기와 계단 이용,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등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여 방법은 SNS 인증 방식이다. 일상 속 실천 장면을 촬영해 지정 해시태그(#해남형SDGs #지속가능해남 #함께해봄 캠페인)와 함께 게시한 뒤, 해당 화면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읍·면사무소에는 ‘해봄 도우미’가 배치된다.

군은 참여 요건을 충족한 군민 중 매일 2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남=박기성 기자 city@gjdream.com

구례 압화체험교육관, 복합문화예술공간 새단장

압화·도자기 결합 체험 제공

구례군 압화체험교육관이 새롭게 단장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났다.

13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재개관한 압화체험교육관은 개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일본 전통 수리 공예 ‘킨츠키’와 압화를 결합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도자기 및 압화 소품 판매도 병행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압화를 활용한 클레이 아트, 압화 미니 달력 만들기, 압화 바나나 제작, 도자기 꽃 모빌 만들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해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결과물을 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시간·운영일은 한국압화박물관과 동일하며, 체험 관련 문의는 한국압화박물관(061-780-2108)로 하면 된다.

구례=김귀진 기자 kjkjin@gwangnam.co.kr